

안전띠 잘 안매고 횡단보도 정지선 안 지킨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가 광주·전남…왜 그런가 봤더니

광주,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68% 사실상 ‘꼴찌’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 81%…조수석은 절반이 안매

광주·전남지역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과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찰의 계도·홍보 활동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띠 착용 소홀=경찰청이 최근 내놓은 '2012 하반기 교통법규 준

한 명은 매지 않고 있으며 전남도 63.1% 수준이다. 광주·전남 모두 전국 평균(62.5%)에도 못 미쳤고 여수는 45.2%, 목포 62.5%, 순천 78.4%에 그쳤다.

광주·전남지역 안전띠 착용률은 각각 전년도 89.1%, 90.3%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석의 경우 출근시간 착용률(광주 92.1%, 전남 87.0%)에 비해 끼운 시간 착용률(광주 67.5%, 전남 78.2%)이 훨씬 낮았다.

경부·중부·영동·서해안고속도로 20개 요금소에서 이뤄진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 조사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운전석은 전년보다 16.2% 포인트 하락한 60.5%에 머물렀고 조수석 56.1%, 뒷좌석 26.7% 등으로 나타났다.

조수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더 심각하다. 광주 지역은 59.4%로 2명 중 수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운전자들의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률은 81.9%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 끌고,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13위에 불과하다. 전남지역도 84.2%로, 전국 10번째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 여수는 86.7%, 목포 81.5%, 순천 84.4% 등이었다.

조수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더 심각하다. 광주 지역은 59.4%로 2명 중

경찰이 지난 2010년 안전띠 단속을 반복 강화했다가 완화한 게 착용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0년 1만 5690건, 전남은 9만7955건의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했지만 지난해에는 광주의 경우 3088건, 전남은 1만9315건을 단속하는데 그쳤다.

◇횡단보도 정지선도 안 치켜=보행자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68.9%로,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15위에 그쳐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1위인 경남의 91.8%보다 무려 22.9% 포인트가 낮았다. 전남은 74.5%로 11위에 머물렀고 전국 평균(77.1%)에도 못 미쳤다.

광주의 횡단 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전년도에 견줘 무려 14.5%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고 전남도 6.6%포인트 감소했다. 안전띠 착용 및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여부가 사망사고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사망자 수(570명)가 전년(526명)에 비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교통계도·단속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찰청이 (주)리서치알앤에이에 의뢰, 광주지역 4개 교차로와 전남 목포·여수·순천 6개 교차로 등 전국 33개 도시 92개 교차로, 4개 고속도로, 15개 도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름방학이다”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가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가운데 24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연제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환하게 웃으며 교실을 나서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학칙 개정

광주·여수캠퍼스

각각 부총장 임명

전남대는 23일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에 각각 부총장을 둔다는 내용의 개정 학칙을 공포했다.

개정 학칙에 따르면 광주와 여수캠퍼스 부총장 모두 대학경쟁력 강화, 캠퍼스 특성화, 발전기금 조성, 대외협력체계 구축 업무를 관할하고 총장을 보좌하도록 했다.

광주캠퍼스 부총장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까지 맡는다. 그동안에는 여수캠퍼스에만 부총장을 둤었다. 전남대는 조만간 절차를 밟아 2명의 부총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대학측은 이날 학사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학 규정도 개정했다. 안정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수강취소 시점과 기준을 확장해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앞당겼으며, 계절학기 운영도 기이수 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체희증기자 cha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31사단 '6·25전승 60주년' 기념 호국 문화행사

육군 제 31보병사단(사단장 박 병기)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지방보훈청과 함께 빛고 무술 시범 등으로 이어지는 식전 행사와 전승 기념식, 축하 퍼포먼스, 호국 음악회 등으로 진행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

교통사고 환자 전문치료

전남대병원 등 4곳

‘권역외상센터’ 선정

전남대학교병원이 교통사고 등으로 큰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공모 결과, 신청한 병

원 18곳 중 전남대병원(광주)을 비롯해 아주대병원(경기 남부), 울산대병원(울산), 을지대병원(대전) 등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자본금 80억 원과 이송체계 구축·홍보·교육 등에 필요한 운영비(최대 7억 2000만원)를 지원받으며, 2014년 12월 말까지 법적기준을 충족한 권역외상센터를 완공해야 한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음

05시 36분

해금

19시 41분

달음

21시 11분

달집

08시 16분

더운 여름 밤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위 계속되겠다.

광주	구름많음	23/31°C
목포	구름많음	24/30°C
여수	구름많음	24/30°C
나주	구름많음	21/32°C
완도	구름많음	24/32°C
구례	구름많음	23/32°C
강진	구름많음	23/31°C
해남	구름많음	23/32°C
장흥	구름많음	22/31°C
순천	구름많음	22/31°C
영광	구름많음	23/31°C
진도	구름많음	23/30°C
전주	맑음	24/32°C
군산	맑음	23/30°C
남원	맑음	23/32°C
흑산도	구름많음	24/29°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식중독자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남서~서	0.5~1.0m			
남비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비다	서~북서	0.5~1.0m	경고	높음	높음
남비다	남서~서	1.0~1.5m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다	남서~서	0.5m	04:02	09:09
남비다	남서~서	0.5~1.0m	목포	16:10	21:17

남해 서부	앞비다	남서~서	0.5~1.0m	여수	10:48	04:40
남비다	남서~서	1.0~1.5m			23:19	16:4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날씨 24/31 24/30 24/29 25/29 25/29 24/30

최저/최고 24/31 24/30 24/29 25/29 25/29 24/30

양식 어민들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5시간이 넘도록 어선을 이용, 스크루를 돌려 '붉은 죽음의 띠'를 부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혼민이다.

특히 푸른 바다호의 경우 주변의 물을 빨아들여 주진력을 얻는 '위터제트엔진'을 장착해 일간 배

에 비해 바다 표층에 떠다니는 적조를 빨아들였다가 분산시키는 데 효과가 커 어민들 사이에서 '적조 대신, 물갈이'가 특효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송창호 기관장은 "하루 평균 70~80마일(약 130km)을 운행하면 기름 소모량이 700ℓ에 달하지만 어민들을 위해 매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건조된 푸른바다호는 25t 짜리 기술 지도선으로, 최대 속도 27노트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양식 어민들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5시간이 넘도록 어선을 이용, 스크루를 돌려 '붉은 죽음의 띠'를 부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혼민이다.

특히 푸른 바다호의 경우 주변의 물을 빨아들여 주진력을 얻는 '위터제트엔진'을 장착해 일간 배

에 비해 바다 표층에 떠다니는 적조를 빨아들였다가 분산시키는 데 효과가 커 어민들 사이에서 '적조 예방 특효'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송창호 기관장은 "하루 평균 70~80마일(약 130km)을 운행하면 기름 소모량이 700ℓ에 달하지만 어민들을 위해 매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건조된 푸른바다호는 25t 짜리 기술 지도선으로, 최대 속도 27노트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송창호 기관장은 "하루 평균 70~80마일(약 130km)을 운행하면 기름 소모량이 700ℓ에 달하지만 어민들을 위해 매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건조된 푸른바다호는 25t 짜리 기술 지도선으로, 최대 속도 27노트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송창호 기관장은 "하루 평균 70~80마일(약 130km)을 운행하면